

2021 THEME 믿음의 태도가 신앙의 고도를 결정한다

I = Imaginative Ministry [창의적 사역]
M = Making Disciples [제자 양육]
P = Passionate Worship [열정적 예배]
A = Action for the Gospel [복음의 실천]
C = Community Outreach [이웃 섬김]
T = Training Missionaries [선교사 양성] &
 Transforming the World [세상을 변화시킴]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el: 949.854.4010 ♦ www.bkc.org ♦ bethel@bkc.org

각 교육부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유아부(2-3세) / 본당 2층 영아부실, 온라인
11:00AM
- 유치부(4-5세) / 유치부실(구식당), 온라인
11:00AM
- 유년부(1-3학년) / 임마누엘, 온라인
11:00AM
- 초등부(4-6학년) / 체육관, 온라인
11:00AM
- 영어중등부(BYM Jr.) / 비전채플, 온라인
11:00AM
- 영어고등부(BYM) / 비전채플, 온라인
9:00AM
- 한어중고등부(CIM) / 살롬채플, 온라인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온라인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비전채플, 온라인
2:00PM
- 日本語 礼拝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1:15P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8시 30분 · 목요일/오후 1시
- TV 방송 (미주 CGN TV):
TV 채널 31.9 · 화요일/오후 2시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Presider 예배 인도자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 All together 다같이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Media 방송실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1, 2, 3부/빌립보서 1:18-26 All together 다같이
4부/마태복음 7:7-12

말씀 Message 1, 2, 3부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기쁨으로 리셋(6) 바울이 살아 있는 세 가지 이유

4부 Rev. Abel Kang 강문구 목사
구두찾기

적용찬양 Song in Response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마음 속에 근심있는 사람(찬484/새365장), 약할 때 강함 되시네

헌금 특송(3부) Offering Song Trio Barclay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Commitment & Offering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믿음 in '21

*축도 Benediction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온라인 예배는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 교회학교 예배가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담임목사 칼럼
Lead Pastor's Column

기도 버릇 Habit of Prayer



김한요 목사 / Rev. Bryan Kim

제자훈련을 마치면서 훈련받은 분들에게 제가 항상 당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암송한 말씀을 잊지 않도록 계속 활용하라는 것과 비록 숙제였지만 1년 가까이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여 버릇처럼 몸에 익은 큐티를 계속하라는 말씀입니다. 제자훈련은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버릇을 몸에 배게 하는 것입니다. '훈련'은 '버릇'을 들이는 작업입니다. 운동도 버릇입니다. 어쩌다 하려면 몸살을 앓지만 계속 꾸준히 운동하면 이 습관이 몸에 배어 버릇이 되고 그때부터 건강에 악센트가 생깁니다.

몸도 버릇 들이기 나름이지만, 생각에도 버릇이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에 걸리면 어쩌지?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어쩌지? 오늘 사고 나면 어쩌지? 불치의 병에 걸리면 어쩌지? 직장에서 해고당하면 어쩌지? 이처럼 머리가 터질 듯한 걱정이 자동 발생하는 메커니즘처럼 우리의 생각 안에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라는 말씀도 있지만 머리 아픈 일들을 오늘로 끌어당겨 염려하는 관성의 법칙이 버릇처럼 우리 몸에 배어 있습니다. 밥 먹을 때가 되면 위장이 때가 되었다고 소화작용을 하며 꼬르륵 소리가 나듯이 뇌 역시 고민할 문제도 없는데 문제를 풀려고 걱정하는 시스템이 자동으로 동원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뇌의 속임수(worry trick)'라고 한 다는데 말 그대로 거짓에 속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를 뇌의 속임에 넘어가 심각하게 고민하게 만드는 증상이 염려라는 버릇입니다.

밥 먹을 때 버릇처럼 위장이 움직이듯, 늘 하던 버릇처럼 뇌가 염려하는 것이라면 버릇 고치는 것이야말로 염려를 이기는 지혜입니다. 매일 하던 염려는 일주일에 한 번만 하는 것으로 버릇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그것이 가능했다면 그다음에는 한 달에 한 번만 하는 것으로 버릇을 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려 대신 모든 지혜에 뛰어난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기도의 버릇을 매일 운동하듯 내 몸에, 나의 뇌 안에 익히는 것입니다. 함께 운동하기를 약속하고 우리 목사님들이 운동에 안 빠지듯이, 기도도 셀 식구들끼리 혹은 사역팀들이 함께 약속하고 <매일 성경>, 혹은 <아침 영상> 등으로 한다면 틀림없이 염려는 기도하는 버릇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직장에서 일 때문에 머리 터지고, 집에서 아이들 때문에 속 터지고... 또 부작용으로 건강에 손해를 보는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새롭게 몸과 생각에 밴 버릇으로 매일매일이 감사로 벅차고 은혜로 가슴이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옛날로 모두 돌아갔다고 하는 것 중에 교통체증이 있습니다. 답답함과 짜증으로 다시 가슴 터지는 과거, 로드 레이저(road rage)로 돌아가지 말고 새로 익힌 기도의 버릇으로 넘치는 감사와 가슴 벅찬 감격이 우리의 가슴을 적시는 새 시대를 열어 갑시다.

I always plead with church members who are completing their discipleship training. I ask them to utilize the verses that they have memorized to keep from forgetting. Although it was a part of their homework, I ask them to continue their QT to begin each day with the Word and prayer that they have become accustomed to doing for almost a year. In a way, Discipleship Training is to form good habits. 'Training' is the work of conditioning your body to form good 'habits'. Exercise is a habit. If done occasionally, your body will ache. When you form a habit of doing it consistently, your health will benefit.

Our body depends on our habits. Our thoughts also have habits. What will happen if I get Covid? What will happen when my loved one dies? What if I get into an accident today? What if I get a horrible disease? What if I get fired from work? These kinds of worries automatically arise in our thoughts. There is a passage "Don't worry about tomorrow". However, we have the habit of worrying today, causing headaches for things that hasn't happened. Just like our stomach rumbles when it's time to eat, although there's nothing to worry about, our minds mobilize like automatic system of worrying to solve problems. This is called 'worry trick'. Just as it says, we are tricked into falsehood. The symptom is the habit of worrying. We are tricked into taking things that are not problems and worrying seriously about them.

If our brains habitually worry like our stomachs move when eating, then fixing our habits to overcome worries is the right solution. To start, take our daily worries and change them to once a week. If that works, then train yourself to extend it to once a month. And, instead of worrying, familiarize yourself with a daily exercise of prayer of trusting God who is omnipotent. Like our pastoral staff are faithful to their commitment to show up for exercise, if you commit with your cell families and ministry teams to read <Daily Bible> or <Morning Video> and pray, then without a doubt, your worries will be replaced by habit of prayer.

When your head is about to explode because of work, your heart is about to explode because of kids at home... and your health is compromised as a result, with the newly formed habit of body and mind, it is good to be overwhelmed with thanks and your heart exploding with grace. Since Covid, one of the things that returned to normal is traffic jam. Let's not turn to road rage out of frustration and irritation. Let's open up to new season of thanks and appreciation with new habit of prayer.

빌립보서 강해 -제6편

주일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김한요 목사

기쁨으로
리셋

바울이 살아 있는 세 가지 이유
(빌 1:18-26)

1. 나의 묘비에 쓸 글이 있다면 무엇이라 쓰겠습니까?

적용하기



2. 바울의 딜레마는 무엇이었습니까? (23-24절)

3. 바울이 살아 있는 이유 세 가지를 아래 정리하면서, 오늘 내가 사는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1) 성도의 () 때문에 (19절, 참고/ 롬 15:30-32, 엡 6:19-20)

2) () 그리스도가 ()하게 되는 기대
(20절, 참고/ 고전 6:19-20, 갈 6:17)

3) 너희 믿음의 ()와 ()을 위해 (25절)

4. 우리의 생명이 있는 한, 우리의 사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 적용찬양: 마음 속에 근심있는 사람(찬484/새365장),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수요 프로젝트 소개

예.수.아



온라인 사역의 중요성이 더없이 높아진 이 기간 동안 우리 교회도 비대면 시대에 걸맞게 "신앙을 기반으로 한 문화 콘텐츠"를 모토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왔습니다.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가 어느덧 1만 명을 넘어서기에 이르렀고, 매주 7천명 이상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담임 목사의 아침 영상을 비롯한 베델 교회의 온라인 콘텐츠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부터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수요일 아침"의 줄임말인 "예

수아"라는 제목의 새 프로그램으로 매주 수요일 오전에 성도들을 새롭게 찾아갑니다. 프로그램의 이름을 정하고 보니 "예수아"는 히브리어로 구원을 뜻하는 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의 이름이기도 하여 제작진들도 의미 있게 잘 만든 이름이라고 서로 자화자찬하며 의욕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들쭉날쭉한 일정과 강행군으로 진행되는 녹화와 녹음 일정이지만, 항상 기도

해 주셔서 어찌나 감사하고 든든한지 모릅니다.

"예수아"는 찬양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가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주일 예배마다 베델 워십팀에서 찬양으로 섬기시는 박경철 목사님과 김현진 집사님이 진행을 맡아주실 것입니다. 성도님마다 각자 사연이 있는 찬양 한 곡쯤은 기억하고 있기 마련인데, "예수아"는 베델뉴스지의 "My Story My Song"섹션에 실리는 찬양에 깃든 은혜 넘치는 간증을 찾아 이야기를 나누고, 그 찬양을 들려 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설교 직후에 찬양을 함께 부르듯 다른 버전의 적용 찬양을 부르며, 다시 한번 지나간 말씀의 은혜를 사모해보고 싶은 의도도 가지고 있습니다. 진솔한 이야기와 찬양을 나누고 싶은 모든 성도들에게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곡의 제목과 사연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예수아"의 이야기와 찬양이 우리 교회를 넘어 온라인 방방곡곡에 은혜의 메시지로 전달되기를 기도합니다.

최철기 간사(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찬양사역

기쁨의 찬양은 보약입니다

주일 예배 찬양을 준비하면서 언제나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며 찬양곡을 선정합니다. 첫째는, 찬양이 동떨어지지 않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찬양과 예배는 사실 하나입니다. 둘 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찬양이란 모든 예배에 잘 녹아들어 지금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누군가 예배하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이 예배자의 마음으로 바뀌기를 위해 기도하며 곡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첫 찬양 예배의 기억

이제껏 베델 교회에 부임하신 사역자 중에 아마도 제가 사역자로서는 가장 어려울 때 부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교회에서 뵈 수 없고, 가끔 뵈는 성도님들도 마스크를 쓰고 뵈는다는 것이 저에게 심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찬양 인도를 하게 되자, 찬양 인도를 하는 첫 주일까지도 내내 '아바지~ 아바지~' 하면서 이미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

히 부르며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예배 인도를 하면서 감사했던 것은 성도님들의 찬양하시는 모습이 얼마나 뜨겁고 은혜로웠던지 제가 오히려 힘을 얻게 되었고, 함께 하는 베델 워십팀 또한 저의 부족함을 잘 덮어주셔서 한 마음으로 뜨겁게 사역을 감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던 하나님께 감사 밖에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찬양 인도자의 준비기도

찬양을 인도하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며 가장 어려운 부분은 준비기도입니다. 일반적인 집회나 찬양 콘서트라면 자유로울 수 있겠지만, 주일 예배 찬양은 반드시 그날 선포되는 말씀과 연결이 되어 그 말씀으로 모든 성도님의 마음이 모이고, 찬양을 통한 은혜에 젖어 들어 성령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와 멜로디가 모든 성도님의 기도가 되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 수 있는 은혜의 연결 고리가 되어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으로 이어지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예비하심

설교 목회에서 찬양 목회로 옮겨오면서 주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부르심을 받은 후, 저는 사역자라는 자리와 찬양을 인도하는 자리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 계획하신 너무나도 확실한 자리라는 것에 한 치의 의심이나 후회 없이 기쁨으로 감사하며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기타를 치며 예배를 인도하기 시작하여, 지금껏 한 번도 쉬지 않고 여러 교회의 집회, 콘서트 등에서 많은 찬양을 부르고 인도해 왔습니다. 더구나 베델 교회의 예배와 찬양은 정말로 특별히 뜨겁고 성령의 기쁨 부으심이 느껴집니다. 이것은 결코 인사치레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찬양함이 너무나 감사하고 참 좋습니다.

박경철 목사

아침 영상 메시지 사역

풍랑 일어나도 안전한 포구



1. 아침 영상 메시지 사역을 시작하게 된 동기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TV와 Youtube 등 미디어 의존성이 높아지며 교회의 미디어 사역도 큰 비중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다행히 베델의 미디어팀은 팬데믹 이전부터 많은 노하우와 실력으로 선교, 베델 영상 뉴스 등 다방면으로 최고의 퀄리티 있는 영상으로 이미 섬겨주고 계셨습니다. 또한 김한요 담임 목사님께서 꾸준히 전해주시는 은혜로운 말씀들과 NG 없이 한번에 가능한 귀중한 말씀 전달의 은사야말로 아침 영상 메시지 사역을 가능케 한 큰 원동력이 아니었나 합니다. 팬데믹과 쿼런틴 동안 처한 현실의 불안을 떨쳐 버릴 수 없을 때 우리에게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다가온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크나큰 위로였고 코로나를 뚫고 나갈 수 있게 만든 용기를 주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몸처럼 연결되어 서로를 보살피는 교회의 본분을 다하는 참 교회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는 귀한 사역으로 "떠밀려짐"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2. 사역을 진행하시면서 어려우셨던 경우를 알려주세요.

영상은 세밀하게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미디어팀이 정해야 하는 뒷배경 영상과 찬양 등 기술적인 부분들을 비롯하여 아침 영상 담당 목회자가 살펴야 할 의상, 찬양 선곡과 교회 내외의 뉴스와 소식, 소품들, 녹화

Storm을 하며 아이디어를 내야 하는 '거룩한 압박감'으로 다가오는 부분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시더라도 말씀을 사모하시는 크리스천들에게 또는 우연히 Youtube에서 말씀을 접하게 되

교회 문이 굳게 닫히고 모든 사역이 멈췄을 때, 텅 빈 교회 건물 어느 한구석에서는 작은 불빛이 깜박깜박 거리고 있었습니다. 깜박이는 그 불빛은 베델을 더욱 더 든든하게 지켜준 "김한요 목사님과 함께하는 아침 영상 메시지"를 찍고 있는 아침 영상팀의 카메라 불빛이었습니다. 팬데믹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수고하신 아침 영상 메시지팀에 감사하며 팀장이신 김주홍 집사를 만나보았습니다. 또한, 이 영상 메시지로 은혜 받으신 LA 거주하시는 Christina Kim 집사와 "봄" 영상 배경사진 기념 이벤트에 참여하셔서 사진 보내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스케줄 등까지도 꼼꼼하고 특별히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부분들이 많아 신경을 많이 써야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 이벤트 등은 계속 Brain

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성도들에게 전해질 주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사역에 몸담을 수 있는 큰 기쁨과 은혜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배경사진: 김은숙 권사

배경사진: 고승일 장로



달세! 베델 가족 여러분!

Christina Kim 집사

저는 LA에 살며, 이곳에 있는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작년 3월 COVID-19으로 힘들고 지쳐있을 때 베델 교회에 다니는 친한 친구에게 기도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친구의 기도와 권유로 저와 어머니는 카톡방 굿모닝 베델을 연결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에 위로가 되고, 힘들어했던 일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이렇게 귀한 목사님의 말씀은 처음이라시며 오늘의 말씀을 시작으로 온종일 김한요 목사님의 설교를 찾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 자신의 생각과 욕심을 버리고 말씀으로 채워 나가면서 끊임없이 배우고 기도하는 게 내가 살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과 "아침영상메시지"사역자님들께 무한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저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어서 매일 오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를 섬기는 베델 가족 여러분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고 계십니다. 저도 베델 가족의 일원이 되는 날이 하루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교사 컨퍼런스 간증

눈높이를 맞춰가며



팬데믹으로 아이들과 교실에서 하던 바IBLE 스터디가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이전보다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게 되었고 그만큼 제자신의 부족함도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번 교사 컨퍼런스는 이런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유쾌하고 열정적인 Sean Choi 목사님의 강의는 재미있으면서도, 목사님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강의여서 제가 고민했던 부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결과가 아니라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 중요하므로 실망이 아닌 소망을 가지고, 주일만의 교사가 아닌 항상 아이들을 향한 마음을 가진 교사가 되도록 노력하고 기도하는 교사가 되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규현 교사(유년부)



이번 교사 컨퍼런스를 통해 학생들을 향한 Paster Sean의 열정을 보면서, 교회학교 선생님의 자리가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선생님이란 어떤 모습인지, 그동안 미처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며,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그 모습으로 학생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야말로 주님께 드려지는 섬김의 시간임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Lauren Kim(초등부)

주님이 기뻐하시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학교 교사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세상과



문화가 변화함에 따라 교육의 방법 또한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진리를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Sean 목사님의 열정과 아이들을 향한 사랑을 보며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말씀을 풀어가기 위해 우리 교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테크닉이 아닌 아이들을 향한 사랑임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온라인 미팅을 통해 나누는 성경 공부가 익숙해진 오늘, 아이들과 함께 모여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드리려는 그날이 속히 오길 기대합니다.

박영선 교사(초등부)



얼마 전 교사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전도사인 저도 이번 컨퍼런스에는 유난히 큰 기대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Sean Choi 목사님께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몇 시간이나 되는 강의 시간 동안 한 번도 지치지 않으시는 놀라운 열정으로 진행해 주셨습니다. 저희 선생님들도 목사님의 열정 가득한 강의로 인해, 지치지 않고 끝까지 컨퍼런스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며 가르친다는 교사로서의 사명은 때로는 무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매우 특별한 부르심입니다. 아이들의 연령과 부서의 특징에 따른 맞춤형으로 강의를 진행해 주신 것도 참 좋았습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고, 다음 세대 아이들의 특

징을 배우고 그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는 선생님들의 기도 한마디 한마디를 들으며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선생님들을 이끄시며 한 마음과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베델 교육부를 사랑하시고 선생님들을 축복하시며 다음 세대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있는 바로 이곳에 우리를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가영 전도사(유아부)



모든 것이 바뀌어 버린 지난 한 해, 감사하게도 online으로 미래의 교사를 위한 리더 훈련을 받게 되었고, 교사분들을 섬기는 것이 저의 소명이 되었습니다. 교사분들의 필요를 더 잘 알기 위해 교사로 섬기고 있지만, 저에게 어울리지 않는 교회 학교 교사라는 자리가 두렵게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교사 컨퍼런스를 리드하신 Sean Choi 목사님이 나눠주신 교육부 목회 경험과 열정을 통해, 교사로서의 삶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된 것이 생전 처음으로 이제 막 교사로서 발을 내딛던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학부모와의 깊은 대화의 중요성, 목회자를 교회의 뼈대로, 교사들을 교회의 인테리어로 비유해 주신 것은 '급하지는 않지만 정말로 중요한' 아이들을 섬기는 일을 좋아하고 집중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최병웅 교사(유년부)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기획/행정: 정승락 목사
 믿음 목장/예배/목회지원: 김형균 목사
 소망 목장/선교: 주성필 목사
 사랑 목장/훈련/베델뉴스/기도: 이충경 목사
 은혜 목장/전도/이웃사랑: 김홍식 목사
 화평 목장/베델워십/셀: 박경철 목사
 새가족/경조: 한순고 전도사
 BGC: Justin Kim 목사
 BGC(Family): Dan Nam 목사
 BGC(College/Worship): Peter Lee 전도사
 일본어 예배/헬스바: 손용주 목사
 예심채플(총괄): 강문구 목사
 예심채플: 서찬석 목사
 예심채플: 김유미 전도사
 영어고등부: 여옥제(John) 목사
 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전도사
 한어중고등부: 이형석 전도사
 교회학교 디렉터: 이진아(Jinah) 전도사
 초등부: 김은정(Jamie) 전도사
 유년부: 장지은(Jieun) 전도사
 유치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유아부: 정가영(April) 전도사
 소망부: 박정민 전도사
 Beyond the Blue: 이란해 전도사
 통역/제자반: 이앤드류 전도사

◎성가대 및 찬양팀◎

지휘자: 박정영, 차은하, 이사무엘
 오케스트라: 박정영
 피아노: 신현진, 지지영, 한현미, 이해경
 오르간: 이정은, 이해경, 박정연
 솔리스트: 최정원
 뮤직디렉터: 정봉화

◎사역 간사 및 인턴◎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한어권: 정티나 간사
 아기학교: 이제나(Jenna) 전도사
 유년부: 김재은 간사
 한어중고등부: 김소영 간사
 영어중고등부: Grace Park 인턴

◎교회 직원 및 간사◎

사무장: 마현진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사무실: 안현미, 박성혜
 재정실: 이수민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음향: 강창위
 방송실: 최종형, 장석영, 김지현
 디자인: 박선경
 웹: 김정아
 수양관: 오춘란

지역광고

베델 한국학교 가을 학기 모집

베델 한국학교가 대면과 비대면 수업으로 2021년 가을 학기를 시작합니다. 그동안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고, 팬데믹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던 봄학기과 여름 캠프에 참여해 주신 모든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베델 한국학교는 우리 자녀들이 한미의 이중 문화와 언어를 자연스럽게 공유하며, 나아가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성인으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기도와 헌신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의 성품과 말씀을 통해 정직함, 공정함, 온전한 인격을 갖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교사가 한 마음이 되어 섬길 것입니다.

특히, 이번 가을 학기는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 두 가지로 진행되기에 원하시는 수업방식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가을 학기에 자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 등록 방법: 베델 한국학교 홈페이지 bks.bkc.org, 6월 21일(월)부터 등록을 받습니다.

▶ 토요일 오전반 (대면 수업)

- 수업 기간: 8월 28일-12월 18일 (16주, 11월 27일 추수감사절 휴강)
- 시간: 매주 토요일 오전 9:00-12:00
- 수업 내용: 큐티, 한국어, 한국 문화
- 대상: 5세 이상부터 중고등학생 (2021년 9월 1일 기준, 킨더 이상)
- 등록 기간: 6월 21일-7월 12일
- 등록비(간식비 포함): \$280 (7월 12일까지 등록 시), \$300 (7월 12일 이후)

▶ 토요일 오후반 (비대면 수업)

- 수업 기간: 8월 28일-12월 18일 (16주, 11월 27일 추수감사절 휴강)
- 시간: 매주 토요일 오후 1:30-3:30 (2시간 수업)
- 수업 내용: 큐티, 한국어, 한국 문화
- 대상: 5세 이상부터 중고등 학생 (2021년 9월 1일 기준, 킨더 이상)
- 등록 기간: 6월 21일-7월 12일
- 등록비: \$180 (7월 12일까지 등록 시), \$200 (7월 12일 이후)

▶ 문의: 이석희 장로 (949)697-7606, 최문정 권사 (949)836-7687

예배 봉사자

강단꽃(6,7월) | 6/27: 김진환, 김한요, 이현주, 한순고 7/4: 옥병광, 정승락 7/11: 기정호, 최동주, 황자경

선교후원

[파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 손승옥, 김진영(김은경), 이바나바(옥소리),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루마니아 | 서형렬(서정희) 조지아 |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협력선교사] 과테말라 실버 | 유한성(유영옥) 기니비사우 | 유요한(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이삭(정이나)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 성결(양선) 온두라스 | 이동철(이순미)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코스타리카 | 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필리핀 | 김송봉(유영선)
 창의적접근지역 | 루진, 온세상, 이희숙, 차은경, 김예평(김진영)
 *선교기관 | 나눔선교회, 네이버스선교회, 멕시코 장로회 신학교, 밀알선교회, 바실레리아 신학교, 한미가정상담소, GP미주본부, Good News Spreaders(GNS), JAMA, NAUH, New Hope 선교 유치원,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The Gospel Coalition(TGC)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TS, CGN TV
 *문서선교 |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베델 알림판

Bethel Announcements

◆ 토요 헵시바 새벽기도회 현장예배 안내

선교지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토요 헵시바 새벽기도회가 다음 주부터 현장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장 예배 참석은 주일예배와 동일하게 화요일 아침 5시 30분에 카톡채널을 통해 발송된 예배신청 링크로 해주시면 됩니다

일시: 7월 3일(토) 오전 6시

◆ 새로운 베델 수요프로젝트 "예수아"

이번 주 수요일(30일)부터 새로운 수요프로젝트 "예.수.아"(예수님과 함께 하는 수요일 아침)이 새롭게 편성되어 방영이 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삶과 말씀을 담는 주제로 제작이 됩니다. 함께 새롭게 시작될 새로운 수요 프로젝트 "예수아"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간: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시청 방법: 카톡채널, 유튜브 베델교회 채널

◆ 셀모임 방학

셀모임이 7월과 8월에는 방학을 맞습니다. 9월부터 다시 시작하는 셀모임을 위한 충전의 시간으로 더욱 예배와 말씀으로 나아가는 기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 카타콤 기도회 방학

팬데믹 중에도 베델교회가 지속적으로 이어오던 카타콤 기도회가 7월부터 잠시 휴식을 갖고 정비하여 가을학기예 새롭게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 기간 동안 각 가정의 영적 카타콤, 기도의 골방이 되기 원합니다.

◆ 일본 선교 (리모트) 팀원 모집

올해 일본 단기선교는 KM, JM, EM, BYM이 연합하여 온라인을 통해 리모트로 진행됩니다. Covid-19으로 인해 선교지 현장으로 직접 갈 수는 없지만 리모트 선교로 영어 성경 캠프, VBS 사역으로 섬기게 됩니다. 처음 시도하는 리모트 선교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정: 7월 25일(주일)-7월 29일(목) 저녁시간

(일본 현지 아침 시간에 맞추어 사역합니다)

신청/문의: 홈페이지, 허웅진 장로 (714)423-6996

◆ 주일 예배 주차 안내

다음 주 7월 4일(주일)부터 예배 인원이 늘어나게 되므로 주차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주일 2, 3부 예배에는 이중 주차를 하고 있으니 이중 주차 하시고 자동차 열쇠를 주차 사무실에 맡기시고 티켓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배를 위해 신속한 출차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중간에는 차량 이동이 어렵습니다. 서로를 위한 배려로 모든 분이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문의: 홍대원 장로 (714)335-3300

◆유영 장학생 및 베델 차세대 크리스천 리더 장학생 모집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정과 패기를 갖추고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을 격려하기 위한 2021년 베델 장학생 프로그램에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베델교회뿐 아니라 타 교회 학생들, 목회자와 선교사 자녀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베델교회에 유영 장학금이 신설되어 장학금 중, 1만 불을 선교사 자녀 중, 특별히 2-3명을 따로 선발해 지급합니다. 선교사 자녀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자세한 안내와 신청서는 교회 홈페이지(www.bkc.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신청은 교회 행정사무실이나 이메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문의: 7월 4일(주일)까지, 김교식 집사 scholarship@bkc.org

◆ 다음 세대를 위한 "베델 클래식컬 아카데미" 등록

베델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클래식컬 크리스천 사립학교를 설립합니다. 이번 가을학기 8월 23일 개교를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찾치는 Kindergarten부터 5학년까지 모집합니다. 등록은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 온라인 등록: <https://forms.bkc.org/PrivateSchool/>

문의: Jamie Kim 전도사 Bethelclassical@gmail.com, 강수민 전도사 (949)303-3535

◆지역 교회를 위한 베델온라인 VBS 설명회

베델 교회학교는 지역 교회들이 온라인을 통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방법들과 올해 진행하는 VBS의 자세한 사항들을 설명회를 통하여 나눌 예정이니 관심 있는 타 교회 교육부 관련 사역자와 선생님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시/방법: 6월 30일 오후 7시, 온라인 Zoom

신청/문의: 교회 홈페이지, 각 부서 전도사

◆ 교회학교 교사 모집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함께 다음 세대를 세워갈 신실한 교사분들을 찾아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모집 부서: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망부

문의: 각 부서 전도사

◆ 매일성경 구입 안내

7,8월호가 카페에 준비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 축하해주세요

- 정영옥/최미영 집사의 차녀 정보에 자매와 편종호 형제의 결혼식이 6월 25일(금)에 있었습니다.
- 이진서 형제와 강주현 자매의 결혼식이 6월 26일(토)에 있었습니다.

◆ 위로해주세요

- 故 조주연 성도님(전상돈 집사의 모친, 김희영 권사의 시모)께서 6월 25일(금)에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 故 최삼례 님(이안나 권사의 시모, 윤성근 님의 모친)께서 6월 25일(금)에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베델뉴스 편집위원

- 발행인: 김한요 담임목사 ■ 편집장: 유미경 권사 ■ 사진: 박상곤 장로, 최호경 집사
- 기자: 강수연 자매, 김선홍 권사, 김유미 권사, 김지연 집사, 김휴리 집사, 박인주 집사, 박정원 집사, 박진아 권사, 안예진 집사, 최경희 권사, 허성숙 집사, 황수정 집사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기쁨으로



리셋

Three Reasons Why Paul is Alive

(Philippians 1:18–26)

1. What would you like to see on your own gravestone?

Apply to Life



2. What is the dilemma that Paul was facing? (v. 23-24)

3. Describe the three reasons why Paul was alive and living, and as you do this think about the reason(s) why you go on living today.

1) The () of the believers (v. 19, Ref: Rom 15:30-32, Eph 6:19-20)

2) Expect and hope that Christ will be () in ().
(v. 20, 1Cor 6:19-20, Gal 6:17)

3) For your () and () in the faith (v.25)

4. As long as we are alive, our mission has not ended. Let us think about the mission that we have been given and pray together.